

# 광주·전남 산단 '코로나19 직격탄'

### 2분기 생산 53조2894억·수출 189억7500만 달러 '3년 내 최저' 산단 100% 분양에도 가동률은 하락...고용, 광주 줄고 전남 늘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광주·전남 산업단지 2분기 생산액과 수출액이 최근 3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년 2분기 전국 산업단지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118개 산단의 2분기(4~6월) 생산액은 53조2894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08억원(-13.1%) 감소했다.

광주·전남 2분기 산단 생산액은 2018년 77조 1730억원→2019년 61조3303억원→올해 53조 2894억원으로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 2분기 광주 13개 산단은 12조9650억원 상당을 생산했고, 전남 105개 산단 생산액은 40조3244억원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산단 생산액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2.8%(12번째), 전남 8.7%(4번째)이다.

경기(92조원·19.8%)와 울산(71조원·15.2%), 충남(51조원·10.9%) 산단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

중은 전국의 절반(45.9%)에 가깝다.

광주·전남 산단은 수출액 부문에서도 최근 3년 안에 가장 나쁜 성적을 받았다.

올 2분기 지역 산단 수출액은 광주 36억2900만 달러·전남 153억4500만 달러 등 189억7500만 달러(20조9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5억8300만 달러(-12%) 감소했다.

광주·전남 산단 2분기 수출액은 2018년 284억 6900만 달러→2019년 215억5800만 달러→올해 189억7500만 달러로 감소 추세다.

전국 수출액 가운데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 9.3%(4번째), 광주 2.2%(9번째)를 나타냈다. 수출액은 경기(367억 달러), 울산(275억 달러), 충남(247억 달러) 순으로 높았다.

올해 광주지역에는 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가 조성되면서 산단 수가 13개로 늘었지만 고용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광주 13개 산단 고용 수는 2분기 기준 6만6414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274명(-1.9%) 감소했다.

광주 산단 고용 수는 지난 2017년 6만3860명에서 2018년 6만8857명으로 5000명 가까이 오른 뒤 이듬해 6만7688명, 올해 6만6414명으로 하락세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전남 105개 산단 고용은 2017년 7만367명→2018년 7만3308명→2019년 7만5935명→2020년 7만9813명으로 연 3~5% 정도 증가 추세다.

한편 올 2분기 기준 광주지역에는 국가산단 2개, 일반 9개, 광주도시첨단산단 1개, 농공단지 1개 등 총 13개 산단이 있다. 전남에는 국가산단 5개, 일반 31개, 전남도시첨단산단 1개, 농공단지 68개 등 105개가 있다.

광주 산단의 분양률은 지난해 96.2%에서 올해 100%를 채우게 됐다. 하지만 2분기 기준 입주업체 3297개 가운데 2943개만 가동하면서 가동률은 소폭 하락(90.5%→89.3%)했다.

전남지역 산단도 분양률이 91.8%에서 93%로 올랐고, 입주기업 3054개 가운데 2764개가 가동하면서 가동률은 83.3%에서 84.7%로 조금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창립 27주년 문화신탁 고영철 이사장의 포부

# “조합원 한 명 한 명 ‘어부바’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 할 것”

### 자산 1조1084억 '전국 신탁 2위' 27년 연속 흑자·경영평가 1등급 '한 자릿수 금리·No 없는 조합' '이용고 배당 제도' 최초 도입 이익금 기부 등 사회회원 확대



자산 1조원을 넘기며 전국 신용협동조합 가운데 자산순위 2위를 수년째 지키고 있는 광주지역 조합이 있다.

광주문화신탁은 창립 이래 27년째 흑자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국 신탁 최초로 '이용고 배당 제도'를 도입하며 조합원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문화신탁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데는 지난 2013년 전국 신탁 최초로 도입한 '이용고 배당 제도'가 한 몫했다. 이 제도는 출자금 배당과 별도로 금융상품을 이용할수록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지급액 6억원을 포함해, 7년 동안 배당된 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한다.

문화신탁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7%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창립 30년을 바라보는 문화신탁은 앞으로 당기순이익 10%를 지역사회에 돌려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27일 창립 27주년을 맞은 문화신탁 고영철(61·사진) 이사장을 복귀 신용동 본점에서 만나 문화신탁이 걸어온 길과 신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다.

그는 지난 1993년 발기인으로 문화신탁 창립에 참여하며, 20여 년 동안 경영 실무를 도맡아 왔고 올해 1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1983년부터 한일은행, 신한은행, 서울증권 등에서 근무한 '금융맨' 출신으로, 27년 연속 흑자경영과 경영평가 1등급 달성을 이끈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지역상생에 대한 의지는 문화신탁 모든 임직원이 참여한 '사회적 협약' 개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자 소득 일부를 기부하는 사회적 협약금은 지난 달 기준 149건 최다(1억 2000만원)를 기록했고, 전 직원 참여는 문화신탁이 처음이다.

지난 2011년 고영철 이사장이 주도해 설립한 광주문화신탁 복지장학재단은 매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128명의 인재를 키워낸 명문 장학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신탁은 제게 27년 동안 온 마음을 쏟아 부은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창립 당시 조합원 196명(출자금 1000원)에서 올해 3만6830명(6만 8198명 거래)이 됐으니, 190배 가량 늘어난 셈이죠.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시작한 우리 조합은 자산 1조1084억원의 전국 두 번째 규모 신탁으로 커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문화신탁은 '한 자릿수 금리'와 'No(No)가 없는 조합'이라는 고 이사장의 철칙을 지키고 있다.

이 재단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인재를 발굴해 대학교 학비(4년)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장학생이 받은 혜택은 12억원이 넘으며, 재단은 내년 부터 광산구 인재양성을 위해 예산을 2억원 추가 확대했다.

“문화신탁이 키워낸 인재들이 함께 조합원 멘토링에 나서고 지역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 장학사업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광주문화신탁이 영업기반을 광산구로 넓히며 또 다른 도약기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한 명 한 명을 든든하게 '어부바'하고 업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 합니다.”

문화신탁이 10년 동안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대출은 총 4153건(399억원)에 달하는데, 연체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9%이다.

“직원들에게는 대출액 실적을 얼마나 더 세우느냐보다 진심을 다해 고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느냐를 우선으로 봐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문화신탁 경쟁력의 밑바탕인 '원스톱 통합대출 서비스'는 다른 조합들이 배워가곤 합니다. 일본 수출규제로 경제위기에 몰렸을 때 내놓은 '8·15 해방대출'은 총 242건(22억2300만원)을 취급하며 전국 3위에 들었습니다.”

“문화신탁이 2011년부터 7년 연속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서민금융지원에 힘쓰는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장, 재정부장관상, 금융위원장상 등을 잇따라 받았다.”

/글·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광산업진흥회 232억 수출 계약 국제광융합산업 온라인 전시회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0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수출상담회'에서 232억원 상당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산업진흥회가 주관했다.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9일 동안 온라인 공식 플랫폼(photonicskorea.org)에서 진행됐다.

상담회에는 미주, 아시아, 중동 등 해외 구매담당자(바이어) 8개국 149명이 참가했다. 참가기업은 120곳이었다.

국내 광융합 기업과 264건의 상담을 통해 372억원의 수출상담이 이뤄졌다. 나눔테크, 다온씨엔티, 선일텔레콤, 신한네트웍스, 지오씨, 피파이 등 광융합산업을 대표하는 지역기업이 16건 232억원 상당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박기용 기자 pbxer@



김장김치 예약판매 29일 (주)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분관 지하 1층에서 각종 김장재료를 선보이고 있다. 이곳에 입점한 '성근식품'은 김장김치 예약판매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 로또복권 (제93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11	28	39	42	45	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08,363,039	13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5,245,571	67
3	5개 숫자일치					1,380,110	2,682
4	4개 숫자일치					50,000	128,408
5	3개 숫자일치					5,000	2,127,595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운명은?

### 법원,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정... 인용 뎀 인수 무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 판단이 이르면 30일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달 30일이나 다음달 1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 지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KCGI 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직원들에게는 대출액 실적을 얼마나 더 세우느냐보다 진심을 다해 고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느냐를 우선으로 봐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문화신탁 경쟁력의 밑바탕인 '원스톱 통합대출 서비스'는 다른 조합들이 배워가곤 합니다. 일본 수출규제로 경제위기에 몰렸을 때 내놓은 '8·15 해방대출'은 총 242건(22억2300만원)을 취급하며 전국 3위에 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7년 연속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서민금융지원에 힘쓰는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장, 재정부장관상, 금융위원장상 등을 잇따라 받았다.

##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조선의 시인 허남설현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